

## 韓國 古代 足衣의 類型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한 혜 진 · 권 영 숙

目 次	
I. 序 論  II. 足衣의 유형 1. 短袴의 신의 종류와 형태 2. 長袴의 신의 종류와 형태 3. 襪의 종류와 형태	III. 用途에 따른 足衣 1. 신분별 2. 착용용도별  IV. 足衣의 재료와 색  V. 結論  參考文獻

### I. 序 論

우리 민족 고유 복식의 기본형은 襦袴와 裳, 袍를 중심으로 冠帽, 帶, 靴, 履 등이 첨부된 것이다. 足衣란 靴, 履와 襪을 포함한 발을 피복하고 있는 일체를 말하며 의복 구성의 주요소중의 하나이다.

신은 의복과 같이 인간 생활의 필요에서 생긴 자연발생적인 산물로, 초기의 신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으나 생활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계급 분화가 생기게 됨에 따라 사회성과 정치성을 띠면서 실용적인 용도의외에 의례적 장식적 용도를 더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신분과 용도에 따라 신의 형태와 재질, 색 등을 달리하여 신분 귀천을 가리게 되었다. 삼국시대 고분 벽화에 나타나는 신발 형에는 오늘날의 고무신 형과 유사한 신발 형이나 신코가 위로 솟은 형의 신발형이 나타나는데 신코가 솟은 형의 신은 상류층에서 의례적 용도로 신을 신기도 했던 고대 국가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襪은 발의 모양을 바로 잡고 보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위에 신발을 덧신게 되므로 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기능적 구조가 강조 되는 복식으로 전통복식의 미를 마무리 해주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足衣는 다른 복식과 조화되어 他복식과 마찬가지로 우리 복식에 반영된 옛 선인들의 풍부한 창의력과 예술성을 잘 표현하면서 시대 변천에 따라 기능성과 심미성을 겸하여 足衣 유형의 다양함과 형태변천을 하여 왔다. 본 연구는 他복식에 비해 연구가 부진했던 우리나라 足衣 形制에 대한 이해와 고찰을 위하여 우선 古代 足衣 形제를 中心으로 한 우리나라 足衣 形제의 근원과 유형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古代의 足衣 形제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벽화와 출토유물을 참고하였고 또한 古代에 우리나라와 상호 밀접한 영향을 가졌던 中國과 日本 등에서 출토된 유물 및 문헌 등도 참고로 하여 足衣 形제를 규명하였다.

시대 범위는 가야 시대,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B.C.1C~A.D.9C)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II. 足衣의 유형

古代 우리나라의 足衣는 유물 및 문헌 자료를 통해 볼 때 短靴의 신으로 履, 鞋, 屨, 屨, 鞮 등이 있으며<sup>1)</sup> 長靴의 신으로 靴,<sup>2)</sup> 그리고 襪<sup>3)</sup> 등이 나타난다.

### 1. 단요의 신

古代 우리나라 문헌 기록과 벽화 등에 나타나는 단요의 신은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履, 鞋, 屨 등이다.

履는 목이 긴 장요의 신에 비해 목이 짧은 신 전체를 일컫는 말로서 쓰였으며, 그 재질에 따라 짚을 엮어 만든 것을 草履, 가죽으로 만든 것을 革履 또는 皮履, 麻로 만든 것을 麻履 라고 불렀다. 履는 목이 짧은 모든 신의 총칭이었으므로 鞋와 屨은 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鞋는 신위에 끈을 달아 줄라 매어 신도록 한 것으로 履와 마찬가지로 그 재질에 따라 부들짚으로 만든 것을 芒鞋, 絲로 만든 것을 絲鞋라고 불렀다.

屨은 신발 밑이 이중으로 된 신을 말하며, 신발 밑부분의 재료에는 가죽 또는 나무를 이용하였다. 문헌 기록에는 赤屨이 보이는데 이는 그 색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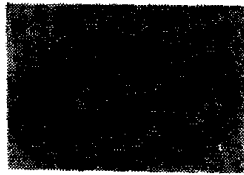
履유형의 신은 벽화와 유물을 통해 볼 때 주로 신코 부분과 신발바닥에 변화를 보인다. 履유형의 신을 고대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고구려

고구려는 履유형은 현존하고 있는 유물은 없지만, 고분 벽화를 통해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履의 형태는 신코 양식에 따라, 신코 부분이 둥근 圓頭형과 뾰족한 尖頭형(또는 小頭형), 위로 솟은 高頭형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외에 신발 밑바닥이 스파이크형으로 보이는 履도 나타난다.

圓頭형의 履는 사신총과 무용총의 벽화를 통해 볼 수 있다. 도1의 통구 사신총 力士상의 履는 매우 아담한 圓頭형으로 장식없이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다. 도2는 무용총 벽화의 履인데 신코 부분이 두툼하게 둥근 형을 이루고 있다. 도3의 履 역시 신코 부분이 두툼하게 둥근 형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벽화의 履와는 달리 신발 양쪽에 끈을 달아 발등에서 묶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鞋의 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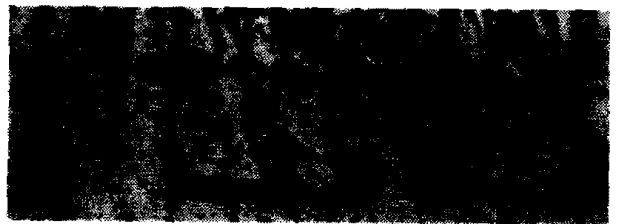
小頭형 또는 尖頭형의 履는 무용총과 안악3호분, 2호분 벽화를 통해 볼 수 있다. 도4는 무용총



도1. 통구사신총 역사상의 履 (한국장신구미술연구)



도2. 무용총 벽화의 履  
(한국장신구미술연구)



도3. 무용총 접견도의 履 (한국전통복식사연구)



도4. 무용총 남자묘주의 履

1) 晉書, 「馬韓...草履」 魏書, 「馬韓...草履鞮」

三國史記 職官條, 「新羅...鞮」

2) 舊唐書 音樂 高麗條, 「赤皮靴...烏皮靴」 三國史記 祭祀樂新羅條, 「烏皮靴」 三國史記 色服條, 「紫皮靴」

3) 三國史記 雜志 第二, 「襪」

남자 묘주의 신발로 끝이 약간 뾰족한 小頭형 또는 尖頭형 履이며, 도5와 도6은 안악3호분 벽화의 여자 履인데 남자의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 부분이 뾰족한 오늘날의 고무신 형태이다.

高頭형의 履는 통구 17호분과 통구 사신총, 輯安 五塊墳, 무용총, 안악 3호분 등의 벽화를 통해 볼 수 있다. 도7은 통구 17호분 羨道 동벽 벽화의 수문 신장이 신고 있는 履인데 신고 부분이 둥글게 위로 올라간 高頭형의 履이다. 도8의 통구 사신총 문수상이 신고 있는 履는 끝이 위로 뒤집어 올라가 있으

며, 도9의 집안 5괴분 제4호분의 거문고를 켜는 인물이 신고 있는 履 역시 신발 앞끝이 뾰족하고 대단히 위로 솟아 올라가 있다. 이와 같이 신고 부분에 변화를 보이는 履 이외에 신발 밑바닥에 변화를 보이는 독특한 형태의 履도 나타나는데, 삼실총 제2실 서벽의 찰갑무인이 신고 있는 이 履는 (도10) 신발 앞부분이 뾰족하고 밑바닥은 오늘날의 스파이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파이크형의 履는 백제와 신라의 금동식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도5. 안악3호분 벽화의 履    도6. 안악2호분 벽화의 履  
(高句麗의文化)



도7. 통구17호분수문신장의 履  
(한국장신구미술연구)



도8. 통구사신총문수상의 履    도9. 집안5괴분 4호분의 履  
(高句麗의文化)



도10. 삼실총제2실 서벽의 찰갑무인의 履  
(한국복식의역사)

2) 백제

백제 履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무녕왕릉, 신촌리 9호분 돌무덤, 입점리, 돌방무덤, 공주 부근 무덤에서 출토한 금동식리(도11~도15)가 있다.

도11, 도12, 도13, 도14의 금동식리는 뒷꿈치 부분이 각이 지고 신발 앞부분은 뾰족하며 약간 들려 있다. 또 신발 밑바닥에는 못이 박혀 있어 마치 스파이크와 같은 형을 하고 있다<sup>4)</sup>. 신발의 크기는 모두 20cm~35cm로 상당히 크며 원형소영락이 달려 있다<sup>5)</sup>. 무녕왕릉 출토품인 왕과 왕비의 飾履는 제작 방식이 거의 같고 형태도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남녀에 따른 형태의 차이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도15의 금동식리는 앞의 飾履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이다. 앞의 飾履는 앞이 들려 있고 뒤도 약간 들려 있는 형태인데 이 飾履는 신발의 앞 끝만 조금 올라가 있다. 또 신발 바닥은 斜格子형으로 단순하게 투각되어 있고 못은 박혀 있지 않다. 크기는 다른 飾履와 마찬가지로 길이 30cm, 높이 9cm로 상당히 크다<sup>6)</sup>.

3) 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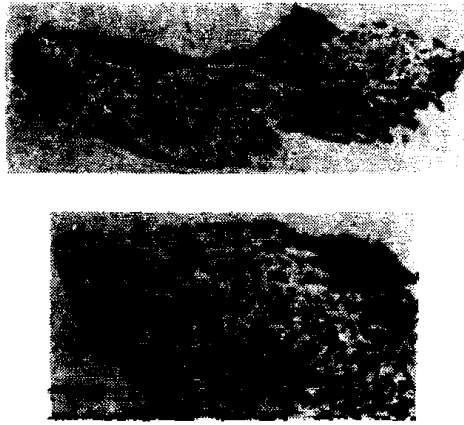
신라의 履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백제와 마찬가지로 금동제 飾履와 5,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土履가 한 점 있다.

신라의 금동식리는 대간총, 은령총, 금관총, 금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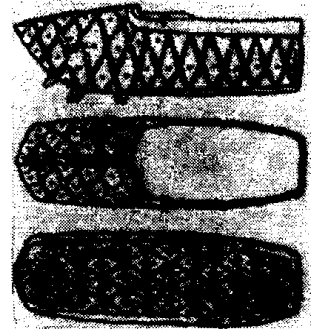
4) 金基雄, 百濟의古墳, 東京:學生社, 1976, p178

5) 金基雄, 前掲, p178

6) 高卿淑, 韓國의靴鞋류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6



도11.12. 무녕왕릉출토 왕 왕비의 금동식리(백제의 복식)



도13. 신촌리9호분출토 금동식리(고분출토부장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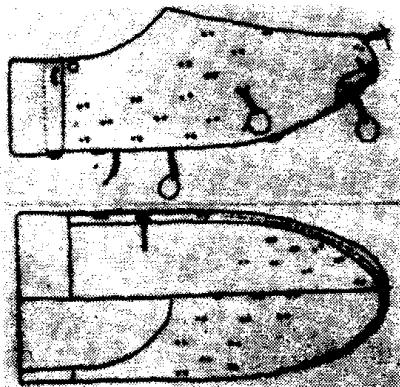
도14. 입정리 돌방무덤출토 금동식리  
(백제고분출토유물특별전)



도15. 공주부근무덤출토 금동식리(우리나라 신에 관한 연구)

총, 천마총, 황오리 제4호분 등에서 출토하고 있으며 형태는 백제의 것과 거의 유사하다. 신 앞부분은 백제의 飾履에 비해 둥글며 차츰 위로 젖혀져 있고 발뒤꿈치 부분은 대부분 모가 나 있다. 원형의 小步搖가 대부분 장식되어 있거나 달려 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스파이크 형식으로 신발 바닥에 금동 못이 장식된 것은 천마총 출토의 飾履에서 볼 수 있다. 크기를 살펴보면 전체 형이 보존되어 있는 것은 30cm 이상이 되므로 백제의 飾履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sup>7)</sup>.



도16. 금관총출토 금동식리  
(한국장신구미술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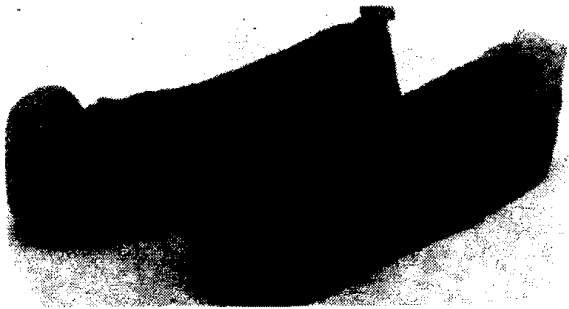
도17. 금령총 출토 금동식리  
(고분출토부장품연구)

7) 金基雄, 新羅의古墳, 東京:學生社, 1976, p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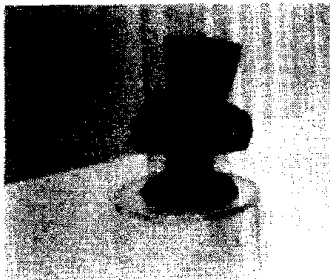


도18. 신라총출토 금동식리(한국복식의 역사)

도19는 5,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土履이다. 이 신의 신코 부분은 둥글면서 위로 솟아 小頭 또는 尖頭형이라 볼 수 있으며, 신발 양옆의 구멍으로 보아 끈으로 매어 신는 鞋형 임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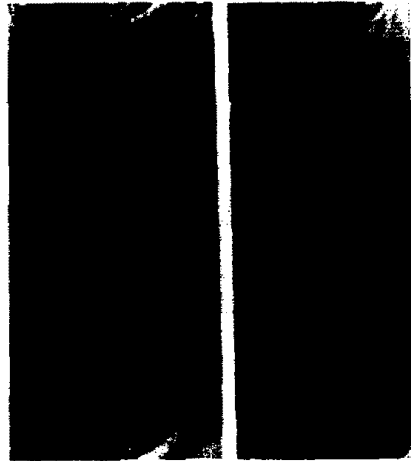
도19. 5,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토리  
(우리나라 신에 관한 연구)



도20. 짚신장식잔

그외, 도20은 짚신장식잔으로 잔 주위에 있는 장식이 당시의 짚신형태를 나타낸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으로 신라시대의 草蓐류로 만든 신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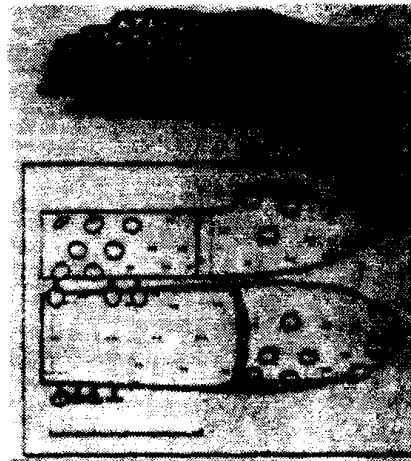
또, 도21의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인물상에 나타난 신의 형태는 靴인지 履인지 명확히 알수는 없지만 신코가 위로 솟은 高頭형의 履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도21. 단석산신선사 마애불상군 인물상

#### 4) 가야

가야 지역에서도 대구내당동 제55호 고분, 양산 부부총, 창녕교동고분, 현풍고분 등에서 금동리식리가 출토하고 있다(도22, 도23). 가야 지역의 금동식리는 백제, 신라의 것과 거의 유사한 형으로 금동판으로 제작되었으며 신의 운두와 바닥에 문양을 새기고 영락을 달았다.



도22. 대구 내당동 출토 금동식리(고분미술)



도23. 현풍가야고분 출토 금동식리(한국복식의 역사)

2. 장요의 신

靴라는 것은 목이 긴 신을 일컫는 말로서 쓰였으며, 재료에 따라 素皮靴, 鳥皮靴 등으로 불렀다.

우리나라의 靴는 신코 양식 두가지로 나타나며, 靴몸체의 길이에 따라서도 몸체가 긴 것과 짧은 것 두 종류가 나타난다. 그의 靴帶를 갖추어 신는 靴형도 나타난다.

靴의 형태를 고대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구려

고구려의 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무용총, 쌍영총, 수렴총, 사신총의 벽화가 있다. 이들 靴형을 살펴 볼 때, 신코가 둥근 中國制 양식과 신코가 뾰족한 胡制 양식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며, 주로 신코가 뾰족한 양식이 나타난다.



도24. 무용총벽화 무용인물의 靴(한국장신구미술연구)

신코가 둥근 靴형은 무용총 벽화에서 볼 수 있다. 도24는 무용총 벽화 속의 무용 인물이 신고 있는 앞코가 둥근 靴인데 뒤꿈치 부분이 독특하게 묘사되어 있다. 뒤꿈치 부분에 조각을 이어 붙인 것인지, 또는 중국 東漢시대에 나타나는 뒤꿈치가 없는 춤신인 鞋와 같이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춤신의 유형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신코가 뾰족한 靴형은 무용총, 쌍영총, 수렴총



도25. 무용총벽화 무용인물의 靴(한국장신구미술연구)



도26. 쌍영총주실북벽 부부총의 靴(한국장신구미술연구)



도27. 쌍영총서벽 벽화의 기마인물상의 靴(한국장신구미술연구)



도28. 사신총북벽 벽화의 靴(한국장신구미술연구)



도29. 수렴총 남녀 묘주의 靴(高句麗의文化)

등의 벽화에서 볼 수 있다. 도25는 무용총 화의 여자 무인이 신고 있는 신코가 뾰족한 형태의 靴이며, 도24는 쌍영총 주실 북벽 부부총에 나타난 靴로, 이 靴 역시 앞코가 뾰족하며 위로 솟아 있고 신 목 부분에 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접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 남녀 앞에 각각 놓인 靴 형태로 보아 남녀의 형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도27, 28, 29은 각각 쌍영총 서벽 벽화의

기마 인물상의 靴, 매사리 사신총 현실 북벽 벽화의 靴, 수렴총 남녀 묘주의 靴이다. 이들 모두 신코가 뾰족하며 위로 솟아 있고 몸체가 길게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코가 뾰족하며 몸체가 긴 靴는 전통 호복식의 靴로 볼 수 있다.

2) 백제

백제의 靴형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백제의 사신을 그린 梁職貢圖가 있다.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靴의 형태는 신코가 뾰족하지 않은 편평하고 가지런한 모양으로 앞의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靴 형종에서 도26과 유사하다.

3) 신라

신라의 靴 형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는 당의 李賢基(章懷太子 묘)의 벽화중 신라 사신이 靴를 신고 있는데(도31) 여기에 나타난 靴형은 도30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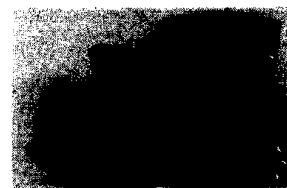
도30. 梁職貢圖에 나타난 백제사신의 靴(東洋服裝史論考)

진덕여왕 3년부터는 唐의 복식제도를 모방하여 唐의 의관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唐靴를 신었다. 흥덕왕 복식 금제항에 靴와 靴帶가 항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의 靴는 靴帶가 함께 사용된 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도32의 鳥皮六合靴와 거의 유사한 형태였으리라 보여진다.

도33, 도34의 土偶를 통해서도 신라의 靴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도33의 기마인물상과 도34의 남자상이 신고 있는 신은 모두 신코가 둥근 중국제 양식의 靴형으로 보인다.

4) 가야

도35는 김해 大歲洞 8호분에서 출토한 土偶로서 몸체가 짧은 靴형을 하고 있다. 신코는 약간 들린 형이며, 신목 부분에 테를 두른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것은 土偶라서 명확히 알 수 없지만 靴帶 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3. 襪

古代 우리나라 襪은 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그 형태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흥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襪은 襪袴의 항목을 달리하고 신분에 따라 재질을 달리 사용하고 있으며 襪과 襪袴에 사용한 재질도 다르다. 또 평인에 이르기까지 襪과 襪袴에 비단을 이용했으며 단 평인은 襪袴에 무늬가 없는 비단을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古代의 襪에는 오늘날의 버선형태는 달리 襪袴 즉 버선목을 따로 붙인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비단류에 수로 장식된 襪은 일상생활용이 아닌 예식용으로 의복을 갖추어 입을 때 이용했으리라 추측된다. 襪과 襪袴가 분리된 襪에 대하여 中華古今注<sup>8)</sup>에 “隋煬帝에 이르러 궁인이 五色의 立鳳朱錦으로 襪袴를 織成한다”라 되어 있어 襪袴에 五色絲로써 무늬를 놓아 織成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襪袴가 분리된 실제 유물도 南宋묘에서 출토하고 있으므로 당시 唐의 복제에 많이 따랐던 흥덕왕의 복식금제조에 나타난 襪과 襪袴에 대한 형태 역시 이러한 중국의 襪 형태와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반 형태의 버선은 고려 시대 문헌<sup>9)</sup>과 조선시대 출토 유물<sup>10)</sup>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주로 일상 생활용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한다.

## Ⅲ. 用途에 따른 足衣

## 1. 신분별

履 유형의 신은 삼국 모두 왕에서 부터 천민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계급에서 폭넓게 이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단, 신분에 따라 재질을 달리 사용했는데 상류층에서는 革류와 비단류를 사용했으며, 하류층에서는 草葛류와 麻 등을 이용했다. 고구

려와 백제의 경우 일반인과 하천민의 신은 당시 기록이나 유물이 없어 잘 알 수 없으나, 백제의 왕과 고구려의 대신은 鳥革履, 黃革履를 신었다<sup>11)</sup>는 기록으로 보아 상류계층에서는 革履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의 경우 흥덕왕 복식 금제를 통해서 상하층에서 사용하였던 재질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진골남자는 皮絲, 육두품과 오두품 남자는 皮, 사두품남자는 牛皮, 麻, 평인남자는 麻 등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상류층에서는 주로 皮, 일반인들은 麻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여자들은 진골녀의 경우 麗繡羅를 금하고 六頭品여자에게는 麗羅繡羅總羅 등을 금하는 것으로 보아 귀족계층 여자는 비단류를 사용한 상당히 화려한 履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靴는 원래 북방 胡族들이 즐겨 신던 胡服용의 신발로서, 무풍적 기질과 기마의 습속을 지닌 북방 민족에게 적합한 신이었다. 즉, 履유형의 신이 남방적 요소를 지닌데 비해 靴는 북방적 요소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靴가 지닌 북방적 요소는 북방 문화와의 교류정도에 따라 상행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와 신라에 비해 북방 민족과의 교류가 빈번했던 고구려에서는 남녀 모두 靴를 신었던 것이 벽화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쌍영총 벽화의 남녀는 거의 같은 형태의 靴를 신고 있고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몸체가 긴 靴를 신고 있으며 무용총벽화 무용도 중 음식 나르는 여인과 시종 드는 남자가 靴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족계급에서부터 천민계급에 이르기 까지, 또 남녀 구별없이 모든 계급에서 靴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와 신라에서는 靴가 고구려만큼 널리 신기지 않아 주로 남성들만 신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흥덕왕 복식금제를 통해 볼 때 신라에서는 靴帶의 재료에 따라 신분 계급을 구별하였다<sup>13)</sup>.

8) 中華古今注, 「至隋煬帝宮人織成五色立鳳朱錦襪袴」, 再引用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女裝飾, 臺北: 南天書局, 1988, p291

9) 海東譯史 卷二十 禮志三 參照, 再引用,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2. p165

10) 광주시립박물관 소장 솜버선, 충북대박물관 소장 솜버선,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안동김씨 유물 등

11) 舊唐書 百濟傳, 「其王服大紬紫袍 青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皮履」

三國史記 古爾王28年條, 「王服大紬紫袍 青錦袴 金花爲飾 羅冠 素皮帶 烏革履 坐南堂聽事」

12) 三國史記 雜志, 第二, 眞骨大等 履任用皮絲麻 眞骨女 履禁縹繡羅 六頭品只用皮麻 六頭品女 履禁縹繡羅 總羅 五頭品履用皮麻 五頭品女履但用皮已下 四頭品履用牛皮麻已下 四頭品女履用皮已下 平人履用麻已下

13) 三國史記 雜志 第二, 眞骨大等 靴禁紫皮 靴帶禁隱文白玉 六頭品靴禁烏鹿皸文紫皮 靴帶用烏犀兪鐵銅 五頭品靴烏鹿皸文紫皮 靴帶用烏犀兪鐵銅 四頭品靴禁烏鹿皸文紫皮 靴帶只用鐵銅 平人禁烏鹿皸文紫皮 靴帶只用鐵銅



襪도 그 재질에 따라 착용 계층간에 차이를 두었는데 즉, 하류층에서는 麻, 布 등의 소박한 직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류층 특히 귀족 부녀들은 錦, 羅 등의 화려한 비단류를 사용하기도 했다.

## 2. 착용용도별

履 유형에 속하는 신은 그 재질에 따라서 신분 계층을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착용 용도에 따라서도 그 재질을 달리했다. 상류층에서는 피혁류와 비단류를 이용했는데 주로 예식용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草, 麻, 芒 등의 소박한 재료는 일상생활용으로, 錦, 絲 등의 비단류와 革 등은 예식용으로 이용되었다.

履 유형 중 屨은 일상생활용으로 쓰이지 않았으며, 의례용으로만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록은 신라 진덕여왕때로서, 진덕여왕3년 김춘추의 청사 관복제중 면복조에 赤屨의 기록이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屨이 의례용 신발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같은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履 유형 중 금동식리는 그 재료와 형태가 아주 특이하다. 금동식리의 前圓後方 형태는 王宇清<sup>14)</sup>의 제례時 사용된 冕服중의 冕冠, 수레, 제단의 형태 등을 天圓地方說에 기인한 前圓後方의 형태로 본 학설과 부합된다. 즉, 天圓地方설이란 天은 圓, 地는 方으로 고대 천자의 수레는 天圓地方說에 근거하여 지붕은 圓形으로 수레 아래에 있는 橫木의 結構는 方形으로 하였고 고대 황제들이 제를 지내던 제단의 형태 또한 天壇은 圓形이며 地壇은 方形으로 하였다. 금동식리 형태 역시 前圓後方으로서 음양의 이치의 상징적 의미로 의례용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금동식리에 사용된 주재료는 금으로 고대인들의 금에 대한 애착은 그것이 재질로서 영구불멸일 뿐 아니라 그 광채는 암흑과 불안을 몰아내는 광명과 상통하며 금의 소유가 곧 부와 힘의 상징이 될 수 있었으므로 儀器와 祭器를 비롯해서 장신구, 신발에 이르기까지 금으로 만들었다.

靴는 주로 官使用, 승마용, 가무용으로 이용되었

다. 靴는 목이 긴 형태의 신이므로 履 유형의 신보다 신기에 불편했으므로 일상생활용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았고, 의례적으로 신는 官使用이나 승마용으로 말을 탈때 신었다. 가무용으로 靴를 신은 것은 문헌 및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무용총의 무용도 중 포를 입은 무인이 靴를 신고 있으며 삼국사기 악조에 舞者가 鳥皮靴를 착용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靴가 가무용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襪도 역시 그 재질에 따라서 신분 계층을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착용용도에 따라서도 재질을 달리했다. 상류층에서는 비단류의 襪을 이용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이런것을 이용했던 것은 아니며, 예식용으로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麻, 布 등의 실용적이고 소박한 재료로 만든 것은 일상생활용으로 錦, 羅 등의 비단류에 수를 놓은 화려한 재료로 만든 것은 예식용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 IV. 足衣의 재료와 색

履 유형에 속하는 신의 재료로는 草葛류, 布帛류, 皮革류, 金屬류의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草葛류; 풀이나 짚으로 만든 것으로 草履, 草屨, 草履鞮, 芒鞋<sup>15)</sup>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신은 남방 민족형의 신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주로 남쪽에서 신었다. 일상생활에 기마의 습속이 없는 농경사회의 신발은 履 계통의 布帛, 짚, 나무를 재료로 한 것이 주류였다.

② 布帛류; 布帛류로는 주로 麻, 絲, 錦, 羅 등의 직물이 사용되며, 麻履, 罽羅履, 繡羅履, 總羅履, 絲鞋<sup>16)</sup> 등이 있었다. 평인들은 주로 마직물을 귀족 계급에서는 錦, 羅 등의 직물을 이용했다. 흥덕왕 복식 금제에 眞骨女는 禁罽繡羅, 六頭品女는 禁繡羅繡羅總羅 라고 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신라 귀족 여성들의 履는 비단류를 이용한 매우 화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皮革류; 皮革류는 生皮인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만든 熟皮인 韋가 이용되며, 革履와 韋履<sup>17)</sup>가

14) 王宇清, 後漢冕版規制“前圓後方”의文化歷史之淵源, 중국고대복식학회논문집, 1991, p4

15) 晉書 韓傳, 後漢書 韓傳, 魏書, 「馬鞮..草履..草履..草履鞮」三國史記 色服條, 「芒鞋」

16) 三國史記 職官條, 「麻履」色服條, 「罽羅履 繡羅履 總羅履」•玉, 「絲鞋」

17) 北史 烈傳, 周書 異域傳, 隋書 東夷傳 高句麗條, 「高句麗人...黃革履」舊唐書 百濟傳, 「百濟王...鳥革履」三國史記 古爾王條, 「王...鳥革履」

있었다. 흥덕왕 복식 금제<sup>18)</sup>에 六頭品과 五頭品 남자는 用皮, 四頭品 남자는 用牛皮, 五頭品과 四頭品女는 用皮라고 되어 있으며, 眞骨남자의 경우 用皮絲라고 되어 있는데 가죽을 밑바닥에 대거나 실같이 엮어서 만든 것을 皮絲履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④ 金屬류; 의례용으로 가끔씩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금동식리에는 금, 은, 동 등의 금속류가 주로 이용되었다.

우리나라 靴의 재료는 모두 皮革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착용 계층이 부녀들에게로 확대되면서 직물로 만든 靴가 등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녀들이 靴를 신었던 것은 고구려 뿐이고 주로 남자들이 사용했던 신이므로 靴의 재료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고 단지 피혁류만 나타난다.

舊唐書에 고구려의 靴로 赤皮靴, 烏皮靴, 삼국사기 색부조에 신라의 靴로 紫皮靴, 烏皮靴, 素皮靴 등의 기록이 보이며 흥덕왕 복식 금제에 眞骨남자는 紫皮를 금하고 六頭品 이하 平人에 이르기까지는 禁烏鹿皵文紫皮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靴의 재료가 피혁류임을 알 수 있다. 가죽 가운데 귀하게 쓰인 것은 얇고 보드러운 사슴 가죽과 노루 가죽 양가죽 등인데<sup>19)</sup> 신라의 금제조에도 鹿皮가 있는 것으로 보아 靴에 사용된 가죽이 상당히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靴帶가 달린 靴의 경우 靴帶에는 귀금속을 장식했는데 그 장식으로는 烏犀<sup>20)</sup>, 鍮<sup>21)</sup>, 銅, 鐵 등이 이용되었다.

襪의 재료로는 주로 布帛류가 이용되었다. 보편적으로 하류층은 布류를, 상류층 귀족 부녀들은 의례용으로 화려한 비단류를 이용했다. 흥덕왕 복식 금제를 통해서 그 재료를 살펴보면<sup>22)</sup>, 眞骨大等の 襪은 능직 비단 이하는 임의로 쓰고, 眞骨女는 麗繡羅 비단을 금지하였다. 六頭品은 絁綿紬布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六頭品女는 麗繡錦羅, 總羅,

野草羅 등을 금지하고 襪物에는 麗羅總羅 등을 금지하였다. 五頭品은 綿紬를 쓰고 五頭品女는 六頭品과 같았다. 四頭品女는 작은 무늬가 있는 絁綿紬布를 襪物는 小文綾 이하는 쓸 수 있었으며 平人女는 絁綿紬를 사용하며 襪物는 무늬가 없는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 제주도 산간지방의 경우 雪靴 안에 신는 가죽 襪이 있어 버선을 가죽으로 만들기도 했음을 볼 수 있는데 古代에도 역시 이와 같은 가죽 襪이 존재했으리라는 추측은 가나 현존하는 유물은 직물류 밖에 없다.

색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예복에 신는 足衣에 색이 정해져 있었음을 문헌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계급에 따라 품색이 뚜렷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예복으로 색상이 정해진 足衣 외에는 일반 하류층에서는 재료에 채색을 하지 않은 素色을 주로 사용했으리라 생각되며, 상류층에서는 비단류를 이용한 아주 화려한 색상의 足衣를 신었다.

## V. 결론

이상의 우리나라 上代 足衣 형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上代 우리나라 足衣의 유형은 목이 짧은 형태의 신으로는 履, 鞋, 屨, 屨 목이 긴 형태의 신으로는 靴, 그리고 버선인 襪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履유형의 신의 형태는 주로 신코 부분과 신밑바닥 부분에 변화를 보인다. 신코 양식으로 분류해 보면 圓頭, 高頭, 小頭(尖頭) 형이 나타나며, 신밑바닥 부분 양식으로는 굽이 없이 편평한 형과 굽이 달린 형의 두가지 양식으로 나타난다.

靴는 주로 신코 부분과 몸체 부분에 변화를 보이며 古代 우리나라의 靴에는 신코가 뾰족한 靴와 신코가 둥근 靴, 몸체가 긴 靴와 짧은 靴, 靴帶를 갖춘 靴등이 있었다. 신코가 둥근 형은 중국제 양식

18) 주 12) 참조

19) 맹인재, 한국의 민속공예, 세종대학기념사업회, 1979, p228

20) 검은 물소뿔

21) 금빛나는 자연동, 자연동 중에서 품질이 가장 좋은 것

22) 三國史記 雜誌, 第二, 眞骨大等 襪任用綾已下 眞骨女 襪禁麗繡羅 六頭品 襪只用絁綿紬布 六頭品女 襪尙禁麗羅總羅 襪禁絁繡錦羅 羅野草羅 五頭品只用綿紬 五頭品女 襪尙禁麗羅總羅 襪禁麗繡錦羅 野草羅 四頭品女 襪只用小文綾已下 襪尙只用小文綾絁綿紬布 平人女 襪尙用無文 襪用絁綿紬已下

襪도 그 재질에 따라 착용 계층간에 차이를 두었는데 즉, 하류층에서는 麻, 布 등의 소박한 직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류층 특히 귀족 부녀들은 錦, 羅 등의 화려한 비단류를 사용하기도 했다.

## 2. 착용용도별

履 유형에 속하는 신은 그 재질에 따라서 신분 계층을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착용 용도에 따라서도 그 재질을 달리했다. 상류층에서는 피혁류와 비단류를 이용했는데 주로 예식용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草, 麻, 芒 등의 소박한 재료는 일상생활용으로, 錦, 絲 등의 비단류와 革 등은 예식용으로 이용되었다.

履 유형 중 烏는 일상생활용으로 쓰이지 않았으며, 의례용으로만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烏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록은 신라 진덕여왕때로서, 진덕여왕3년 김춘추의 청사 관복제중 면복조에 赤烏의 기록이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烏이 의례용 신발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같은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履 유형 중 금동식리는 그 재료와 형태가 아주 특이하다. 금동식리의 前圓後方 형태는 王宇清<sup>14)</sup>의 제례時 사용된 冕服중의 冕冠, 수레, 제단의 형태 등을 天圓地方說에 기인한 前圓後方의 형태로 본 학설과 부합된다. 즉, 天圓地方설이란 天은 圓, 地는 方으로 고대 천자의 수레는 天圓地方說에 근거하여 지붕은 圓形으로 수레 아래에 있는 橫木의 結構는 方形으로 하였고 고대 황제들이 제를 지내던 제단의 형태 또한 天壇은 圓形이며 地壇은 方形으로 하였다. 금동식리 형태 역시 前圓後方으로서 음양의 이치의 상징적 의미로 의례용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금동식리에 사용된 주재료는 금으로 고대인들의 금에 대한 애착은 그것이 재질로서 영구불멸일 뿐 아니라 그 광채는 암흑과 불안올 몰아내는 광명과 상통하며 금의 소유가 곧 부와 힘의 상징이 될 수 있었으므로 儀器와 祭器를 비롯해서 장신구, 신발에 이르기까지 금으로 만들었다.

靴는 주로 官使用, 승마용, 가무용으로 이용되었

다. 靴는 목이 긴 형태의 신이므로 履 유형의 신보다 신기에 불편했으므로 일상생활용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았고, 의례적으로 신는 官使用이나 승마용으로 말을 탈때 신었다. 가무용으로 靴를 신은 것은 문헌 및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무용총의 무용도 중 포를 입은 무인이 靴를 신고 있으며 삼국사기 악조에 舞者가 鳥皮靴를 착용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靴가 가무용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襪도 역시 그 재질에 따라서 신분 계층을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착용용도에 따라서도 재질을 달리했다. 상류층에서는 비단류의 襪을 이용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이런것을 이용했던 것은 아니며, 예식용으로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麻, 布 등의 실용적이고 소박한 재료로 만든 것은 일상생활용으로 錦, 羅 등의 비단류에 수를 놓은 화려한 재료로 만든 것은 예식용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 IV. 足衣의 재료와 색

履 유형에 속하는 신의 재료로는 草葛류, 布帛류, 皮革류, 金屬류의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草葛류: 풀이나 짚으로 만든 것으로 草履, 草屨, 草履鞮, 芒鞋<sup>15)</sup>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신은 남방 민족형의 신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주로 남쪽에서 신었다. 일상생활에 기마의 습속이 없는 농경사회의 신발은 履 계통의 布帛, 짚, 나무를 재료로 한 것이 주류였다.

② 布帛류: 布帛류로는 주로 麻, 絲, 錦, 羅 등의 직물이 사용되며, 麻履, 罽羅履, 繡羅履, 總羅履, 絲鞋<sup>16)</sup> 등이 있었다. 평인들은 주로 마직물을 귀족 계급에서는 錦, 羅 등의 직물을 이용했다. 흥덕왕 복식 금제에 眞骨女는 禁罽繡羅, 六頭品女는 禁繡羅繡羅總羅 라고 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신라 귀족 여성들의 履는 비단류를 이용한 매우 화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皮革류: 皮革류는 生皮인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만든 熟皮인 韃가 이용되며, 革履와 韋履<sup>17)</sup>가

14) 王宇清, 後漢冕版規制“前圓後方”의文化歷史之淵源, 중국고대복식학회논문집, 1991, p4

15) 晉書 韓傳, 後漢書 韓傳, 魏書, 「馬鞮..草屨..草履..草履鞮」三國史記 色服條, 「芒鞋」

16) 三國史記 職官條, 「麻履」色服條, 「罽羅履 繡羅履 總羅履」•玉, 「絲鞋」

17) 北史 烈傳, 周書 異域傳, 隋書 東夷傳 高句麗條, 「高句麗人...黃革履」舊唐書 百濟傳, 「百濟王...烏革履」三國史記 古爾王條, 「王...烏韋履」

있었다. 흥덕왕 복식 금제<sup>18)</sup>에 六頭品과 五頭品 남자는 用皮, 四頭品 남자는 用牛皮, 五頭品과 四頭品女는 用皮라고 되어 있으며, 眞骨남자의 경우 用皮絲라고 되어 있는데 가죽을 밑바닥에 대거나 실같이 엮어서 만든 것을 皮絲履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④ 金屬류: 의례용으로 가끔씩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금동식리에는 금, 은, 동 등의 금속류가 주로 이용되었다.

우리나라 靴의 재료는 모두 皮革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착용 계층이 부녀들에게로 확대되면서 직물로 만든 靴가 등장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녀들이 靴를 신었던 것은 고구려 뿐이고 주로 남자들이 사용했던 신이므로 靴의 재료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고 단지 피혁류만 나타난다.

舊唐書에 고구려의 靴로 赤皮靴, 烏皮靴, 삼국사기 색복조에 신라의 靴로 紫皮靴, 烏皮靴, 素皮靴 등의 기록이 보이며 흥덕왕 복식 금제에 眞骨남자는 紫皮를 금하고 六頭品 이하 平人에 이르기까지는 禁烏鹿毳文紫皮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靴의 재료가 피혁류임을 알 수 있다. 가죽 가운데 귀하게 쓰인 것은 얇고 보드러운 사슴 가죽과 노루 가죽 양가죽 등인데<sup>19)</sup> 신라의 금제조에도 鹿皮가 있는 것으로 보아 靴에 사용된 가죽이 상당히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靴帶가 달린 靴의 경우 靴帶에는 귀금속을 장식했는데 그 장식으로는 烏犀<sup>20)</sup>, 鍮<sup>21)</sup>, 銅, 鐵 등이 이용되었다.

襪의 재료로는 주로 布帛류가 이용되었다. 보편적으로 하류층은 布류를, 상류층 귀족 부녀들은 의례용으로 화려한 비단류를 이용했다. 흥덕왕 복식 금제를 통해서 그 재료를 살펴보면<sup>22)</sup>, 眞骨大等の 襪은 능직 비단 이하는 임의로 쓰고, 眞骨女는 麗繡羅 비단을 금지하였다. 六頭品은 紕綿紬布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六頭品女는 麗繡錦羅, 總羅,

野草羅 등을 금지하고 襪物에는 麗羅總羅 등을 금지하였다. 五頭品은 綿紬를 쓰고 五頭品女는 六頭品과 같았다. 四頭品女는 작은 무늬가 있는 紕綿紬布를 襪物는 小文綾 이하는 쓸 수 있었으며 平人女는 紕綿紬를 사용하며 襪物는 무늬가 없는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 제주도 산간지방의 경우 雪靴 안에 신는 가죽 襪이 있어 버선을 가죽으로 만들기도 했음을 볼 수 있는데 古代에도 역시 이와 같은 가죽 襪이 존재했으리라는 추측은 가나 현존하는 유물은 직물류 밖에 없다.

색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예복에 신는 足衣에 색이 정해져 있었음을 문헌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계급에 따라 품색이 뚜렷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예복으로 색상이 정해진 足衣 외에는 일반 하류층에서는 재료에 채색을 하지 않은 素色을 주로 사용했으리라 생각되며, 상류층에서는 비단류를 이용한 아주 화려한 색상의 足衣를 신었다.

## V. 결론

이상의 우리나라 上代 足衣 형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上代 우리나라 足衣의 유형은 목이 짧은 형태의 신으로는 履, 鞋, 屨, 屨 목이 긴 형태의 신으로는 靴, 그리고 버선인 襪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履유형의 신의 형태는 주로 신코 부분과 신밑바닥 부분에 변화를 보인다. 신코 양식으로 분류해 보면 圓頭, 高頭, 小頭(尖頭) 형이 나타나며, 신밑바닥 부분 양식으로는 굽이 없이 편평한 형과 굽이 달린 형의 두가지 양식으로 나타난다.

靴는 주로 신코 부분과 몸체 부분에 변화를 보이며 古代 우리나라의 靴에는 신코가 뾰족한 靴와 신코가 둥근 靴, 몸체가 긴 靴와 짧은 靴, 靴帶를 갖춘 靴등이 있었다. 신코가 둥근 형은 중국제 양식

18) 주 12) 참조

19) 맹인재, 한국의 민속공예, 세종대학기념사업회, 1979, p228

20) 검은 물소뿔

21) 금빛나는 자연동, 자연동 중에서 품질이 가장 좋은 것

22) 三國史記 雜誌, 第二, 眞骨大等 襪任用綾已下 眞骨女 襪禁麗繡羅 六頭品 襪只用紕綿紬布 六頭品女 襪禁麗繡羅總羅 襪禁麗繡錦羅 羅野草羅 五頭品只用綿紬 五頭品女 襪物禁麗繡羅總羅 襪禁麗繡錦羅野草羅 四頭品女 襪只用小文綾已下 襪物只用小文綾紕綿紬布 平人女 襪物用無文 襪用紕綿紬已下

이며 신코가 뾰족한 형은 胡靴 양식으로 생각된다. 몸체가 긴 靴는 원래 전통 胡服용의 靴로, 몸체가 긴 靴가 이용되다가 그 착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남방 지방의 의례용 신으로 靴가 이용되고 몸체를 짧게 한 靴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襪은 흥덕왕 복식금제에 버선목을 따로 붙인 것과 비단 襪의 유형이 나타난다.

2) 足衣를 용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신분별 착용 용도는 주로 재료와 장식에 의해 신분을 구별하였다.

履 유형 중에 屨만 의례적인 용도로 귀급계급에서 이용되었고, 그외의 신은 상류층에서 널리 신겼으며 그 재료로 신분의 차이를 나타냈다.

靴는 고구려에서는 남녀 모두 靴를 신었던 것이 벽화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靴와 靴帶의 재료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襪 또한 그 재료에 따라 신분 계층을 구별하였다. 하류층에서는 麻 등을 이용하거나 맨발을 한 사람도 많았던 반면에 상류층에서는 綾, 羅, 錦 등의 비단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상류층에서도 항상 비단류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며 일상생활에서는 麻, 布 등을 이용했다.

착용 용도는 일상생활용도와 의례용 또는 가무용으로 쓰인 특수용도등에서 그 형태나 재료를 달리 하여 사용하였다.

履 유형의 신 중 屨은 의례적인 용도에 한정되어 이용되었고 그외의 신은 그 재료에 따라 草, 麻, 芣 등의 소박한 재료는 일상생활용, 錦, 絲 등의 비단류와 革 등으로 만든 것은 예식용으로 이용되었다. 그외 재료와 형태가 아주 특이한 금동식리는 의례적인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靴는 목이 긴 형태의 신이므로 履 유형의 신보다 신기에 불편했으므로 일상생활용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았고, 의례적으로 신는 官使용이나 승마용으로 말을 탈때 신었으며 가무용으로도 이용되었다.

襪은 재료에 따라서 麻, 布 등의 실용적이고 소박한 재료로 만든 것은 일상생활용으로 錦, 羅 등의 비단류에 수를 놓은 화려한 재료로 만든 것은 예식용으로 이용되었다.

3) 足衣의 재료와 색에 대해 살펴본 결과 履 유형에 속하는 신의 재료는 布帛류, 草葛류, 皮革류, 금속류의 네가지로 나타난다. 이 중 금속류를 이용

했던 것은 실용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더 강하게 띠면서 금으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고자 했던 것 같다.

靴의 재료로는 皮革류가 주로 이용되었고, 靴帶의 장식으로는 烏犀, 鍮, 鐵 등이 이용되었다.

襪의 재료로는 布帛류가 주로 이용되었다. 가죽 襪이 존재했으리라는 추측은 가나 현존하는 유물은 직물류 밖에 없다.

색에 있어서 예복 足衣의 계급에 따른 품색은 알 수 없으나 예복으로 색상이 정해진 足衣 외에는 일반 하류층에서는 素色을 그대로 사용했으리라 생각되며 상류층에서는 화려한 색상의 足衣를 신었다.

#### 參 考 文 獻

-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고대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 박경자, 회감기념 韓國服飾論考, 서울:新丘文化社, 1983
- 衫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古代編), 東京:文化出版局
- 衫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古代編), 東京:文化出版局
- 原田淑人, 漢六朝의服飾, 東京:東洋文集, 1967
- 原田淑人, 唐代의服飾, 東京:東洋文集, 1970
- 맹인재, 한국의 민속공예,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0
- 新疆ウイグ 自治區박물관, 중국의 박물관 제2기 1, 講談思
-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女裝飾, 臺北:南天書局, 1988
- 유희성, 韓國服飾史研究,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7
- 이여성,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 高福南,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亞細亞文化社, 1979
- 李能和, 朝鮮女俗考(李能和全集2), 韓國學研究所, 1927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一志社, 1988

- 金基雄, 百濟의 古墳, 東京; 學生社, 1976
- 金基雄, 新羅의 古墳, 東京; 學生社, 1976
- 韓炳三, 古墳美術(韓國美術全集2), 서울; 同和出版社
- 韓炳三, 古墳美術(韓國의 美22), 東亞日報社
- 國立公主博物館, 百濟古墳出土遺物特別展, 1989
- 濟州大學校 博物館圖錄, 1989
- 朝鮮總督府, 古墳調查特別報告 第三冊(本文上冊), 1924
- 朝鮮總督府, 古墳調查特別報告 第三冊(圖版上冊), 1924
- 朝鮮總督府, 古墳調查特別報告 第五冊(本文), 1927
- 朝鮮總督府, 古墳調查特別報告 第三冊(圖版上冊), 1927
- 湖南省博物館, 長沙馬王堆一號漢• 上, 北京; 文物出版社, 1973
- 呂南喆· 金洪圭 公譯, 高句麗의 文化, 社會科學院考古學研究所 編
- 황호근, 韓國裝身具美術研究, 서울; 一志社
- 尹世英, 古墳出土副葬品研究,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 金芝嬉, 우리나라 신에 관한 研究, 복식12호
- 朴永福, 백제장신구, 한국고고학보22집, 한국고고학회, 1989. 6
- 高卿淑, 韓國의 靴鞋류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金東旭, 百濟의 服飾,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